

# CJ, 진로소주 인수전 막판 동참

## 주간사 메릴린치증권에 LOI 제출 ... 해외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CJ는 2월14일 진로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증권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진로 인수전에 공식 참여한  
다고 발표했다.

CJ는 국내외 관련기업들과 진로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소재식품과 가공식품, 외식, 식품자재  
유통 등 강력한 식품 인프라를 진로와 접목시켜 소주사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키워가기 위해 인  
수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J는 앞으로 진로를 소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춘 주류회사로 육성하고 동시에 일  
본과 미국, 중국 등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진로 브랜드의 글로벌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CJ는 “현재 국내 M&A(인수·합병)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고 진로 역시 비슷한 조짐이 있다는 항  
간의 우려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 실사 등 정밀분석 작업을 통해 기존 진로의 임직원이나 CJ의 주주 등 모든 이  
해 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입찰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는 진로 인수작업 참여를 위해 2004년부터 별도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JP모건과 삼일회계법  
인 등 국내외 M&A 전문가 그룹과 공동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5/02/15>